

# ‘수산 1번지’ 전남 친환경 인증 갈 길 멀다

## 생산량 전국의 98% ... 인증은 1.9% 뿐 가격경쟁력 향상·고품질화 방안 시급

‘수산 1번지’인 전남이 친환경 수산물 생산 장려로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어민들의 인식부족과 제도 미비로 친환경 인증제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와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등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 2009년부터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나서 지난해 말 기준 2만2968t을 생산했다. 2010년 2910t, 2011년 1만6021t, 2012년 1만8002t 등 적은 양이나마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전국 친환경 수산물 생산량 2만3347t의 98%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인증면적은 김 2788ha, 미역 391ha, 굴 33ha 등 3212ha로 전국 3237ha의 99%를 차지했다. 그러나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전남도 전체 양식어장 10만1000여ha의 3.2%에 불과,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24.6%에 달하는 농업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

다. 생산량도 지난해 전남도 내 생산량 122만t과 비교해 1.9%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업에 비해 인증역사가 짧아 어민들의 인식이 낮은 데다 인증 기준, 체계 등도 최근에 마련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된 수산물이라고 해도 일반 수산물과 가격차가 없는 점이 인증제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다. 인증을 얻어 생산했다더라도 가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인증 절차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에 대한 어업인 교육과 홍보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일반 수산물과의 가격차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도 5500ha, 전체 양식장의 5% 정도 인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장흥 무산김처럼 차별화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목포에서 열린 친환경 수산물 육성 심포지엄에서 정보영 박사는 “화학합성물을 과다 사용하는 관행식품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품질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체계

적인 인증기준을 확립하여 친환경 수산물의 고품질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122만t으로 전국 생산량의 47%를, 생산액(소득)은 1조7886억원으로 전국 대비 24%를 차지했다.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친환경 수산물=인체에 해로운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이다.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으로 나뉘며 김, 미역, 굴이 주를 이룬다.

# 은행들, 이익 줄자 대출 가산금리 올려

## 시티 0.32, 국민 0.19, 신한 0.06%P ... 서민층 위주 인상

은행들이 이익이 줄어들자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1년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방식)의 가산금리를 최고 0.63%포인트 인상했다. 가산금리는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붙는 것으로서 은행의 마진, 대출자의 신용도, 담보까지 등이 고려 요소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컸다. 씨티은행의 가산금리는 평균 0.97%포인트로 1년 전보다 0.32%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도 0.19%포인트 상승한 1.20%포인트다. 다른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은 0.06%포인트, 우리은행은 0.03%포인트씩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은 소득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 위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자료를 보면 저신용층인 7~10등급의 가산금리 인상은 최고 2.32%포인트에 달했다. 신용도가 높고 고소득층이 주로 분포한 1~3등급의 가산금리 인상은 같은 기간 최고 0.51%포인트에 불과했다. 저신용층 가산금리를 2.32%포인트 인상한 신한은행은 고신용층 가산금리는 0.02%포인트만 올렸다. 신한은행도 고신용층 가산금리를 0.06%포인트 올리면서 저신용

층 가산금리는 0.23%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 한국SC은행, 경남은행의 경우 저신용층 가산금리를 0.02~0.19%포인트 높은 것과 반대로 고신용층 가산금리는 0.01~0.04%포인트 깎아줬다. 서민층을 상대로 한 가산금리 인상 강도는 담보가 없는 개인신용대출에서 훨씬 더 컸다.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한 외환은행은 고신용층의 가산금리를 0.30%포인트 내린 대신 저신용층의 가산금리를 0.24%포인트 올렸다. 전북은행은 저신용층 가산금리가 9.89%포인트에 달했다. 기준금리 3.60%를 더한 대출금리는 13.49%로, ‘배(기준금리)’보다 ‘배꼽(가산금리)’이 컸다. /연합뉴스



**봄 패션 멋 더해주는 클러치백**  
여성 고객들이 1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더블엠’매장을 찾아 화사한 봄 패션에 멋을 더해주는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클러치백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産銀, 저금리 중소·중견기업 대출 상품 출시

**창립 60주년 기념**  
KDB산업은행이 창립60주년을 기념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창립 60주년 특별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특별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

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출은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하며, 규모는 1조원이다. 대출 통화는 원화, 미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으로 원화와 외화 각각 1.0%, 0.4%의 금리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4824개의 중소·중견기업에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3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올해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정책금융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7.1% 증가한 25조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고객을 위해서는 KDBdream정기예금과 KDBdirect·Hi정기예금을 24일부터 각각 최고 2.90%와 2.95%의 우대금리를 적용 제공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중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지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농협 광주도매사업소, 호남권 물류기지 급성장

## 2년만에 농산물 400억 판매 올해 말엔 장성물류센터 완공

농협중앙회 광주도매사업소(소장 김훈)가 설립 2년만에 400억여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명실상부한 호남권 농산물 물류기지로 급성장 하고 있다. 18일 농협중앙회 광주도매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광주 수완동에 광주도매사업소를 설립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광주도매사업소는 설립된지 6개월만에 100억여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2012년에는 340억원, 2013년도는 400억원이 넘는 지역 농산물을 판매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산지 지역농협이 고정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 소비자들은 심심한 농산물을 저렴

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농협과 판로를 연결해 주는 가고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5~6단계였던 기존 농산물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여 생산 농민과 도시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는 등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훈 도매사업소장은 “배송이 끝나고 빈자로 올라오는 회송차량을 통해 판매 관내 산지 출하 농산물을 순회수집하는 방법으로 물류비까지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도매사업소는 올해 말 ‘장성물류센터’를 완공하여 One-stop구매 채널 등 첨단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계통배송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양파 과잉물량 6만2000t 시장서 격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산 양파 재고량이 많고 2014년산 햇양파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잉물량 8만3000t중 6만2000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산 양파 재고량은 10월 기준 9만7000t으로 예년보다 1만~1만6000t 많은 수준이며, 2014년산 양파 생산량은 144만8000t으로 평년보다 7만t가량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과잉물량 8

만3000t 중 자율감축, 수매비축, 생산조정 등으로 6만2000t을 시장에 풀지 않고 격리하고 가공확대로 3000t을, 소비축진 행사로 1만8000t을 처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3년산 양파 재고량 동향과 2014년산 햇양파의 작황, 가격 동향 등을 자세히 관찰해 수급여건 변동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파 도매 가격은 1월 759원/kg에서 2월 704원/kg, 3월 초 555원/kg, 3월 중순 513원/kg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 제과점·PC방 등 창업 쉬워진다

건축물 입점 규제 완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제과점, 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조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가 함유되지 않은 3주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센터 080-234-6588

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